GOVP1200612114
T0006858

2005년
경기도 사회통계조사 결과

복지, 안전, 환경 부문

2006. 2.

통 계 청
경기지방통계청

목 차

Ⅰ. 2005년 사회통계조사 개요 ····· 3

Ⅱ. 2005년 경기도 사회통계조사 결과 ····· 4

【 복 지 】

1.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60세 이상) ····· 4
2.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및 살고 싶은 곳(60세 이상) ····· 5
3. 생활비 마련방법(60세 이상) ····· 6
4.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0세 이상) ····· 7
5.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60세 이상) ····· 8
6. 노후준비방법 ····· 9
7.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 10
8. 만 10세 이하 자녀양육 실태 ····· 11
9.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2
10.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 13
11.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14
12. 보육(교육)료 부담에 대한 인식 ····· 15
13.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 16
14. 자녀양육의 가장 어려운 점 ····· 17
15. 희망 보육(교육)시설 확충 ····· 18
16.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19
17.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20
18.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 21
19.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 22
20.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 23
21.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24
22.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 25

【 안 전 】

1. 준법수준 ····· 26
2.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 27
3. 공공질서 수준 ····· 28
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9
5.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30
6.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 31
7. 범죄피해 미신고 비율 및 이유 ····· 32

【 환 경 】

1. 쓰레기 종량제 참여시 불편한 점 (가구주) ····· 33
2.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가구주) ····· 34
3. 환경보호 부담의향 ····· 35
4.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 36
5. 환경오염 방지노력 ····· 37

Ⅰ. 2005년 사회통계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질적 수준과 사회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자료로 제공

2. 조사연혁

○ 1979년 3월 최초로 조사하여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하여 공표
- 1979년 이후 매년 조사하여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 공표(1979~1995)

○ 1996년 이후 사회통계조사 결과 자체공표 및 보고서 발간

3. 조사대상 및 기간

○ 조사대상 : 전국 약 33,000 표본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
(경기도 약 3,700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기간 : 2005. 6. 19. ~ 6. 28.(10일간)

4. 조사내용

○ 2005년 조사 : **복지, 안전, 환경** 부문

※ 총 12개 부문 중 매년 3개 부문을 4년 주기로 조사

1) 가족 2) 소득과 소비 3) 노동 4) 교육 5) 보건 6) 주거와 교통
7) 정보와 통신 8) 환경 9) 복지 10) 문화와 여가 11) 안전 12) 사회참여

5. 조사방법 : 조사원 기입방식(면접조사 원칙)

Ⅱ. 2005년 경기도 사회통계조사 결과

【 복 지 】

1.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60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 중 52.3%가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주된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독립생활이 가능해서」,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임

○ 2005년 경기도 만 60세 이상 노인 중 47.7%가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었음

-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여자가 50.0%로 남자 44.7%보다 5.3%p 높았음

○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노인(52.3%)의 경우, 그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독립생활(수입, 건강 등)이 가능(22.4%)」,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16.4%)」,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16.4%)」 순이었음

<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60세 이상)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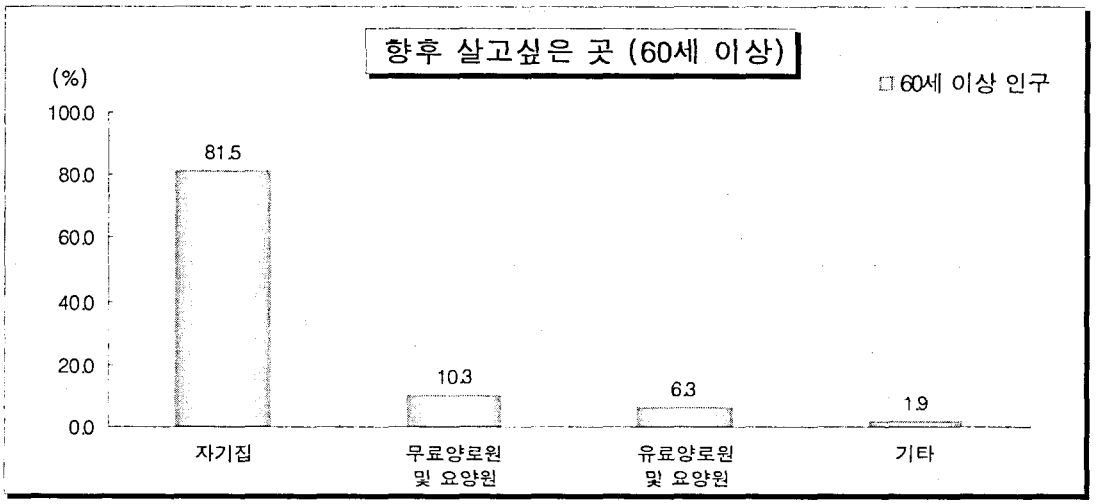
	계	같이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소계	독립생활이 가능해서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	자녀와의 불화로	기타
60세 이상 인구	100.0	47.7	52.3	100.0	22.4	16.4	40.1	16.4	1.8	2.9
남 자	100.0	44.7	55.3	100.0	26.0	13.5	38.6	19.6	1.7	0.6
여 자	100.0	50.0	50.0	100.0	19.4	18.9	41.4	13.7	1.8	4.8

2.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및 살고 싶은 곳 (60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 중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48.2%로 이들 중 81.5%가 「자기집」에서 살기를 원하였음

○ 2005년 경기도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같이 살고 싶다」는 51.8%,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48.2%로 나타났음

○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장래 살고 싶은 곳으로는 「자기집」이 8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료양로원 및 요양원(10.3%)」, 「유료양로원 및 요양원(실버타운 등)(6.3%)」 순이었음



<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및 살고싶은 곳 (60세 이상) >

(단위 : %)

	계	같이 살고싶다	같이살고 싶지않다	소계	자기집	무료 양로원 및 요양원	유료 양로원 및 요양원	기타
60세 이상 인 구	100.0	51.8	48.2	100.0	81.5	10.3	6.3	1.9

3. 생활비 마련방법 (60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58.6%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며, 남자(73.9%)가 여자(47.0%)보다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26.9%p 더 높았음

○ 2005년 경기도 만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 58.6%, 「자녀 또는 친척지원」 36.4%, 「정부 및 사회단체」 4.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73.9%를 차지한 반면, 여자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47.0%,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46.3%로 나타났음

○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방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58.0%)」, 「재산소득(이자, 임대, 배당소득)(16.9%)」, 「연금, 퇴직금(16.8%)」, 「예금, 적금(8.4%)」 순이었음

< 생활비 마련방법 (60세 이상)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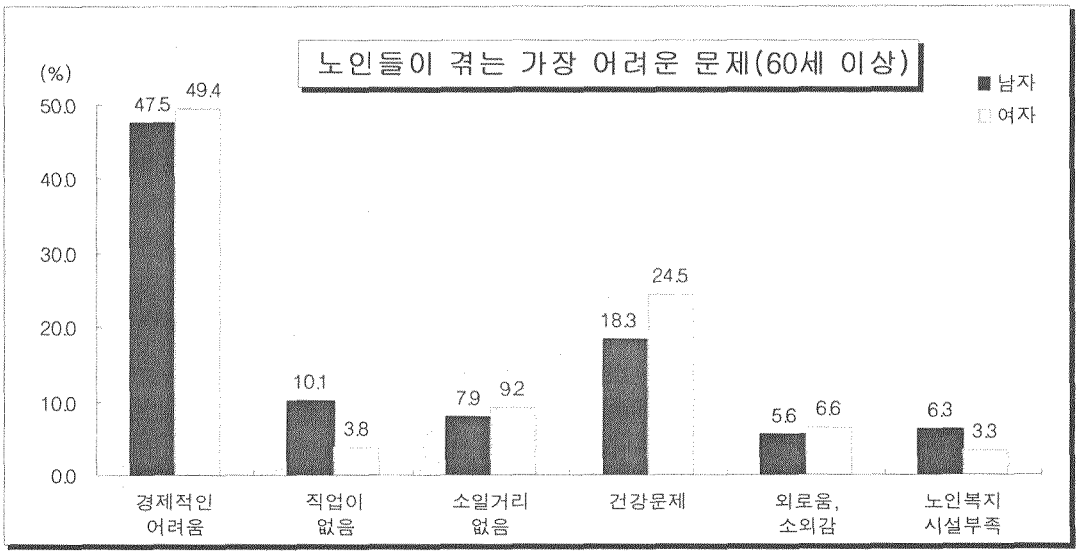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소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소계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60세 이상 인구	100.0	58.6	100.0	58.0	16.9	16.8	8.4	36.4	100.0	56.9	43.1	4.7	0.3
남 자	100.0	73.9	100.0	60.7	14.7	17.4	7.2	23.3	100.0	46.4	53.6	2.7	0.1
여 자	100.0	47.0	100.0	54.7	19.5	16.1	9.7	46.3	100.0	60.9	39.1	6.2	0.5

4.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0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임

○ 경기도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강문제(21.8%)」, 「소일거리 없음(8.6%)」의 순이었음

-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직업이 없음」, 「노인복지시설 부족」에 대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60세 이상) >

(단위 : %)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 음	소일거리 없 음	건 강 문 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 터 푸대접	경 로 의 식 약 화	노 인 복 지 시 설 부 족	기 타
60세 이상 인 구	100.0	48.6	6.5	8.6	21.8	6.2	2.0	1.5	4.6	0.1
남 자	100.0	47.5	10.1	7.9	18.3	5.6	1.9	2.3	6.3	0.1
여 자	100.0	49.4	3.8	9.2	24.5	6.6	2.2	0.8	3.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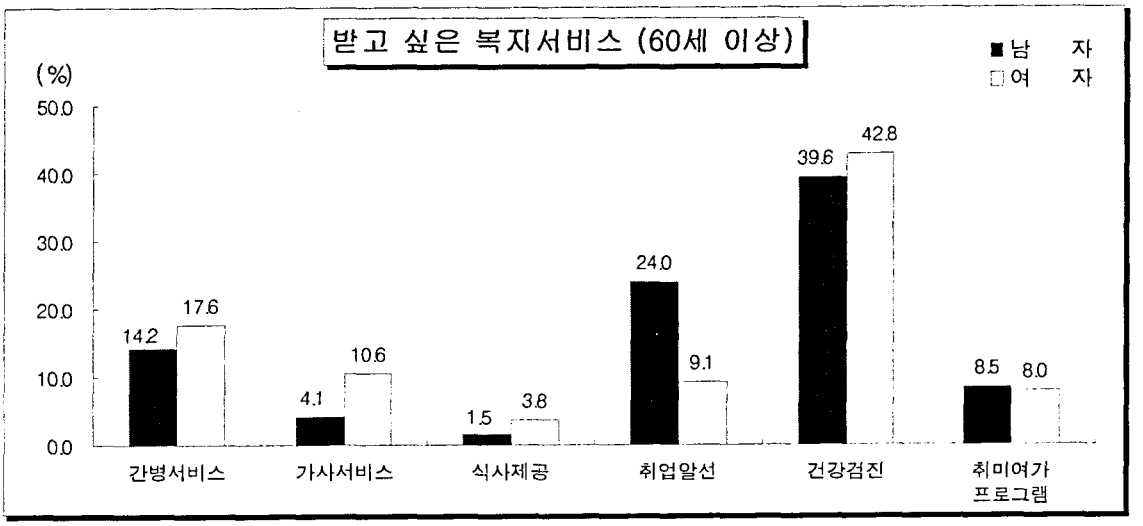
5.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 (60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의 74.2%가 정부 등으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받기 원하였고, 그 중 「건강검진 (41.4%)」, 「간병서비스 (16.1%)」를 많이 선호함

○ 2005년 경기도 만 60세 이상 노인의 74.2%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받고싶다」고 응답하였음

○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는 「건강 검진」이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간병서비스(16.1%)」, 「취업알선(15.7%)」, 「취미 여가 프로그램(8.2%)」 순이었음

- 남자는 「건강 검진(39.6%)」, 「취업 알선(24.0%)」, 여자는 「건강 검진(42.8%)」, 「간병서비스(17.6%)」 순으로 복지 서비스를 희망함



<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

(단위 : %)

	계	받고 싶다	소계	간병서비스	목욕서비스	가사서비스	식사제공	이야기상대	취업알선	건강검진	취미여가프로그램	정보화등[1] 각종교육	받고 싶지 않다
60세 이상 인 구	100.0	74.2	100.0	16.1	2.8	7.7	2.8	2.7	15.7	41.4	8.2	2.6	25.8
남 자	100.0	75.8	100.0	14.2	2.2	4.1	1.5	2.1	24.0	39.6	8.5	3.8	24.2
여 자	100.0	73.1	100.0	17.6	3.3	10.6	3.8	3.1	9.1	42.8	8.0	1.5	26.9

주 : 1) '기타' 포함

6. 노후준비방법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주는 67.5%로,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 「예금·적금」, 「사적연금」 순이었음

○ 2005년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67.5%로, 이들의 주된 노후준비방법은「국민연금(37.5%)」, 「예금·적금(21.8%)」, 「사적연금(20.2%)」 순이었음

○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주(32.5%)의 경우 「준비할 능력이 없음(39.1%)」,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36.8%)」,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15.6%)」, 「자녀에게 의탁(8.6%)」 순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방법 (가구주)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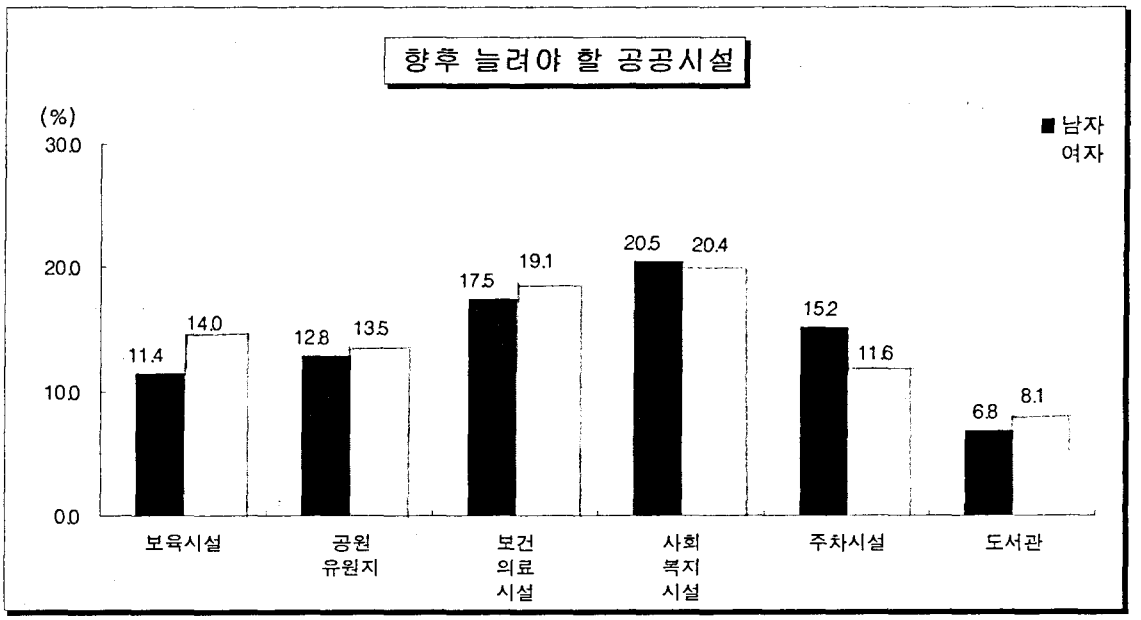
	계	준비 있음	소계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부동산 운 용	주식,[1] 채권	준비 없음	소계	아직 생각 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 획	준비 능력 부족	자녀 에게 의탁
가 구 주	100.0	67.5	100.0	37.5	8.2	20.2	4.0	21.8	7.3	1.0	32.5	100.0	15.6	36.8	39.1	8.6
남 자	100.0	72.3	100.0	38.9	8.6	19.2	4.5	20.2	7.5	1.0	27.7	100.0	18.0	43.4	33.1	5.5
여 자	100.0	50.1	100.0	29.8	5.8	25.8	1.4	29.9	6.2	1.2	49.9	100.0	10.6	23.4	51.2	14.8

주 : 1) '계', '기타' 포함

7.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향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주차시설」 순임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2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건 의료 시설(18.3%)」, 「주차시설(13.4%)」, 「공원, 유원지(13.1%)」 순이었음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

(단위 : %)

	계	보육 시설	어린이 놀이터	공원, 유원지	보건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주차 시설	문화 회관	도서관	체육 시설	쓰레기 소각장	기타
15세 이상 인구	100.0	12.7	3.2	13.1	18.3	20.4	13.4	4.4	7.5	4.1	2.7	0.2
남 자	100.0	11.4	2.9	12.8	17.5	20.5	15.2	3.7	6.8	6.1	2.9	0.1
여 자	100.0	14.0	3.6	13.5	19.1	20.4	11.6	5.0	8.1	2.1	2.5	0.3

8. 만 10세 이하 자녀양육 실태

만 10세 이하 자녀의 낮 동안 또는 방과 후 양육 주체는 「자녀의 부모(63.7%)」, 「학원(32.7%)」, 「유치원(13.7%)」 순이었음

○ 만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낮 동안 또는 방과 후 양육은 「자녀의 부모」에 의한 경우가 6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원(32.7%)」, 「유치원(13.7%)」, 「보육시설(13.3%)」 순이었음

- 자녀 보호자의 연령이 25~29세인 경우 「자녀의 부모」, 「자녀의 조부모」, 30~34세인 경우 「자녀의 부모」, 「보육시설」인 반면 35~39세, 40세 이상인 경우는 「자녀의 부모」, 「학원」 순으로 자녀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만 10세 이하 자녀양육 실태 (복수응답) >

(단위 : %)

	자녀의 부모	자녀의 조부모	가족, 친인척	탁아모, 가정부, 이웃사람	혼자, 아동끼리 보냄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방과후[1] 교실
자녀의 보호자	63.7	12.2	3.0	0.6	9.2	13.7	13.3	32.7	4.7
자녀보호자의 연령									
25 ~ 29세	82.4	16.8	5.5	0.0	1.8	4.0	6.9	4.5	1.8
30 ~ 34세	72.1	11.7	2.3	0.3	3.9	17.3	21.3	13.2	2.4
35 ~ 39세	61.2	10.9	2.8	1.1	10.2	16.1	12.9	37.5	5.4
40세 이상	58.6	13.6	3.2	0.2	12.5	9.6	9.1	44.0	5.6

주: 1) '기타' 포함

9.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가족 등 개인이 돌보는 것이 안심」, 「보육(교육)료가 부담되어서」 임

○ 만 10세 이하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내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가족(본인) 등 개인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육(교육)료가 부담됨(24.4%)」, 「어려서 받아주지 않음(12.1%)」 순이었음

- 자녀보호자의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가족 등 개인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5~29세의 경우는 「어려서 받아주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나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구간에서는 「보육(교육)료가 부담됨」으로 나타났음

<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단위 : %)

	계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안심	어려서 받아주지 않음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음	교육내용이 마음에 안 듦	보육시간이 맞지 않음	보육(교육)료가 부담됨	환경, 시설이 마음에 안 듦	특수교육 시설이 없음	기타
자녀의 보호자	100.0	57.1	12.1	1.0	1.3	1.8	24.4	0.7	0.4	1.1
자녀보호자의 연령										
25 ~ 29세	100.0	53.9	28.5	0.0	0.0	2.1	15.5	0.0	0.0	0.0
30 ~ 34세	100.0	67.9	13.7	0.3	0.3	0.3	15.1	0.0	0.7	1.9
35 ~ 39세	100.0	58.2	9.6	1.7	1.1	1.9	25.7	1.1	0.6	0.0
40세 이상	100.0	46.9	7.7	1.3	2.9	3.1	34.7	1.3	0.0	2.1

10.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녀의 발전을 위해서(45.4%)」 임

○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녀의 발전을 위해서(45.4%)」 였고, 다음은 「별도의 학습지도가 필요해서(19.4%)」, 「예·체능 특기교육을 위해서(18.7%)」, 「부모 대신 보육을 위해서(14.0%)」 순이었음

- 자녀 보호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사회성 등 자녀의 발전을 위해서」 보육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25~29세인 경우는 「별도의 학습지도가 필요해서」, 30~34세인 경우는 「부모대신 보육을 위해」, 35~40세는 「예체능 특기교육이 필요해서」, 4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별도의 학습지도가 필요해서」였음

<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

(단위 : %)

	계	사회성 등 자녀의 발전을 위해	부모 대신 보육을 위해	예·체능 특기 교육을 위해	별도의 학습지도가 필요해서	집의 학습환경이 좋지않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기타
자녀의 보호자	100.0	45.4	14.0	18.7	19.4	1.1	1.2	0.2
자녀보호자의 연령								
25 ~ 29세	100.0	36.4	31.4	0.0	32.1	0.0	0.0	0.0
30 ~ 34세	100.0	60.3	19.5	7.6	8.7	1.4	2.6	0.0
35 ~ 39세	100.0	44.7	15.2	20.5	17.2	1.1	1.1	0.1
40세 이상	100.0	38.5	8.6	23.1	27.6	1.1	0.7	0.3

11.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만족」 41.5%, 「불만족」 12.3%로 나타났고, 불만족의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비용부담(46.9%)」임

○ 만 10세 이하 자녀가 다니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 41.5%, 「보통」 46.2%, 「불만족」 12.3%로 나타남

○ 보육(교육)기관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비용부담(46.9%)」이었고, 다음은 「안전관리가 미흡함(16.9%)」,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음(13.4%)」, 「교사의 자질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음(10.7%)」 순이었음

<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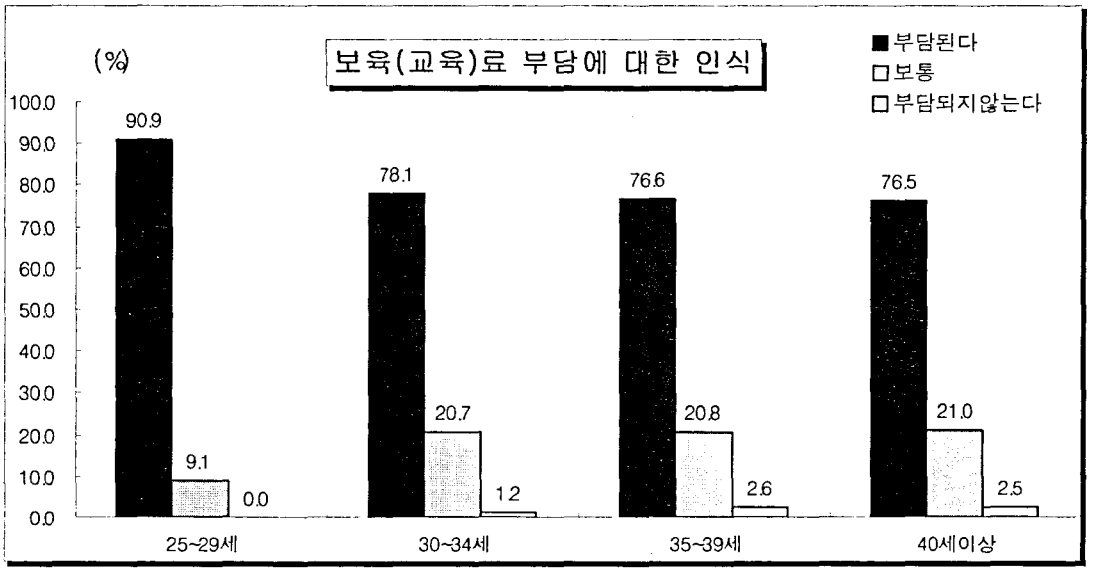
	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계	비용 부담이 큼	원하는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없 음	교 육 프로그램 불만족	안전 관리 미흡	건강, 영양 관리 불만족	교 사 자 질 불만족	기타
자녀의 보호자	100.0	41.5	46.2	12.3	100.0	46.9	6.3	13.4	16.9	5.8	10.7	0.0
자녀보호자의 연 령												
25 ~ 29세	100.0	42.0	35.8	22.2	-	-	-	-	-	-	-	-
30 ~ 34세	100.0	48.8	33.1	18.1	-	-	-	-	-	-	-	-
35 ~ 39세	100.0	44.9	43.8	11.3	-	-	-	-	-	-	-	-
40세 이상	100.0	34.1	55.8	10.1	-	-	-	-	-	-	-	-

12. 보육(교육)료 부담에 대한 인식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가구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가 77.1%

○ 현재 가구소득에 비해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의 부담정도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77.1%, 「보통」 20.7%, 「부담되지 않는다」 2.3% 였음

- 자녀 보호자의 연령별로는 25~29세에서 「부담된다」 비율이 90.9%로, 30~34세(78.1%), 35~39세(76.6%), 40세 이상(76.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보육(교육)료 부담에 대한 인식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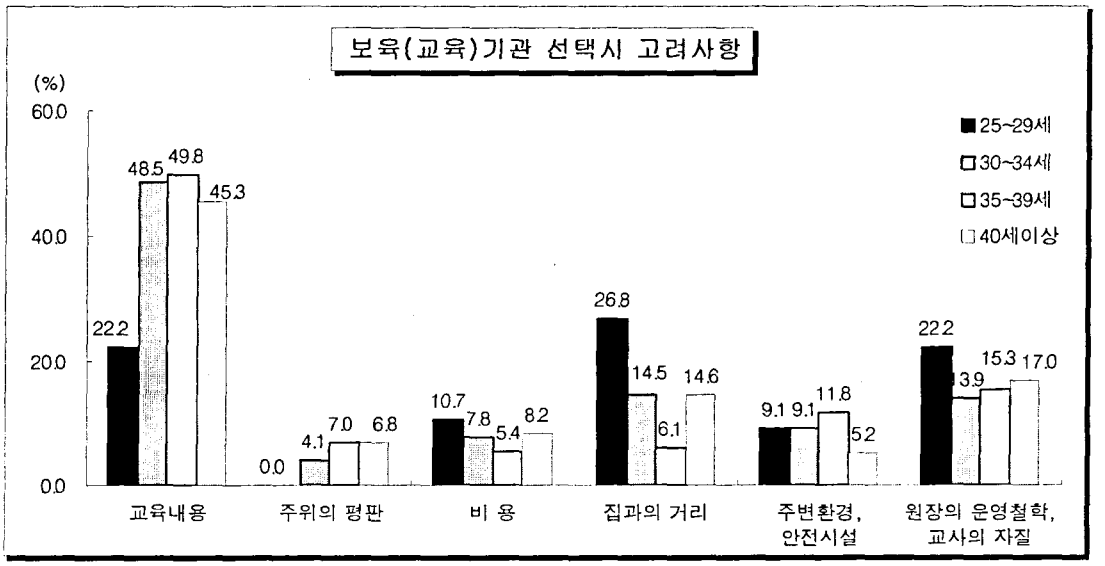
	계	부담된다	매우	약간	보통	부담되지 않는다	별로	전혀
자녀의 보호자	100.0	77.1	26.0	51.1	20.7	2.3	2.2	0.1
자녀보호자의 연 령								
25 ~ 29세	100.0	90.9	22.2	68.7	9.1	0.0	0.0	0.0
30 ~ 34세	100.0	78.1	27.1	50.9	20.7	1.2	1.2	0.0
35 ~ 39세	100.0	76.6	26.8	49.8	20.8	2.6	2.6	0.0
40세 이상	100.0	76.5	24.7	51.8	21.0	2.5	2.3	0.2

13.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은 「교육내용(47.5%)」임

○ 자녀를 위해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으로는 「교육내용」이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원장의 운영철학 또는 교사의 자질(15.8%)」, 「집과의 거리(11.2%)」, 「주변환경, 안전시설(8.8%)」, 「비용(7.0%)」 순이었음

- 자녀 보호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 이상인 경우는 「집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30세 이상에서는 「교육내용」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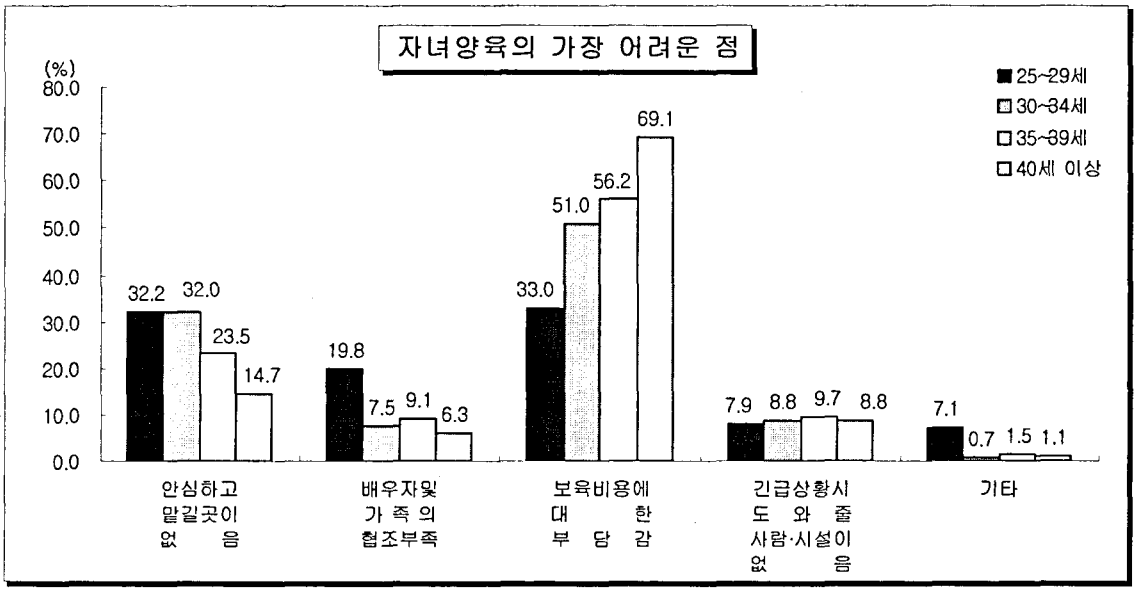
	계	교육내용	주위의 평 판	운영시간	비 용	집과의 거 리	주변환경, 안전시설	국공립 여부	원장의 운영철학, 교사자질	기 타
자녀의 보호자	100.0	47.5	6.3	2.7	7.0	11.2	8.8	0.6	15.8	0.2
자녀보호자의 연 령										
25 ~ 29세	100.0	22.2	0.0	4.5	10.7	26.8	9.1	4.5	22.2	0.0
30 ~ 34세	100.0	48.5	4.1	2.0	7.8	14.5	9.1	0.0	13.9	0.0
35 ~ 39세	100.0	49.8	7.0	2.8	5.4	6.1	11.8	1.3	15.3	0.3
40세 이상	100.0	45.3	6.8	2.7	8.2	14.6	5.2	0.0	17.0	0.2

14. 자녀양육의 가장 어려운 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감(58.5%)」,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22.6%)」임

○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으로는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22.6%)」, 「긴급상황시 도와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음(9.2%)」 순이었음

- 보호자의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음



< 자녀양육의 가장 어려운 점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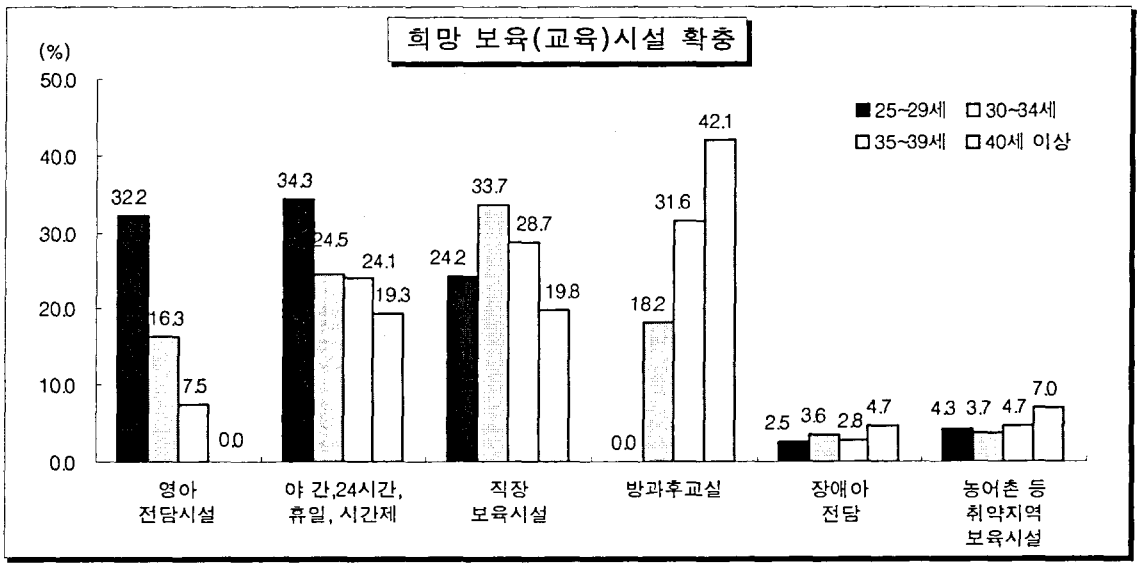
	계	안심하고 맡길곳이 없 음	배우자및 가 족 의 협조부족	보육비용에 대 한 부 담 감	긴급상황시 도 와 줄 사람·시설이 없 음	기타
자녀의 보호자	100.0	22.6	8.2	58.5	9.2	1.4
자녀보호자의 연 령						
25-29세	100.0	32.2	19.8	33.0	7.9	7.1
30-34세	100.0	32.0	7.5	51.0	8.8	0.7
35-39세	100.0	23.5	9.1	56.2	9.7	1.5
40세 이상	100.0	14.7	6.3	69.1	8.8	1.1

15. 희망 보육(교육)시설 확충

향후 우선적으로 확충되기를 원하는 보육시설은 「방과후 교실(31.0%)」, 「직장보육시설(26.3%)」 임

○ 향후 우선적으로 확충되기를 원하는 보육시설은「방과후 교실(31.0%)」,「직장 보육 시설(26.3%)」,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시설(23.0%)」 순으로 나타남

- 보호자의 연령별로 보면 25~29세인 경우는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보육시설」을 가장 원하고, 30~34세 연령층은「직장 보육 시설」, 30대 후반 이상은 「방과후 교실」을 가장 원하였음



< 희망 보육(교육)시설 확충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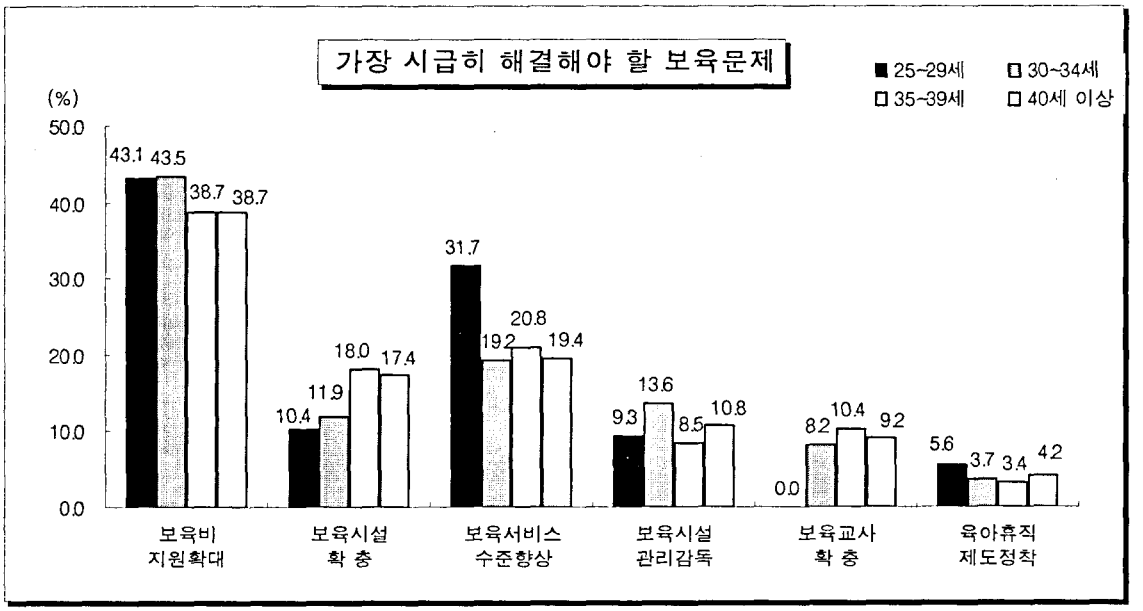
	계	영 아 전담시설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직 장 보육시설	방과후 교 실	장애아 전 담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시설	기 타
자녀의 보호자	100.0	10.3	23.0	26.3	31.0	3.6	5.3	0.6
자녀보호자의 연 령								
25-29세	100.0	32.2	34.3	24.2	0.0	2.5	4.3	2.5
30-34세	100.0	16.3	24.5	33.7	18.2	3.6	3.7	0.0
35-39세	100.0	7.5	24.1	28.7	31.6	2.8	4.7	0.6
40세이상	100.0	6.4	19.3	19.8	42.1	4.7	7.0	0.7

16.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아동의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육비 지원확대」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20.5%)」, 「보육시설 확충(16.0%)」 순이었음

- 자녀보호자의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보육비 지원 확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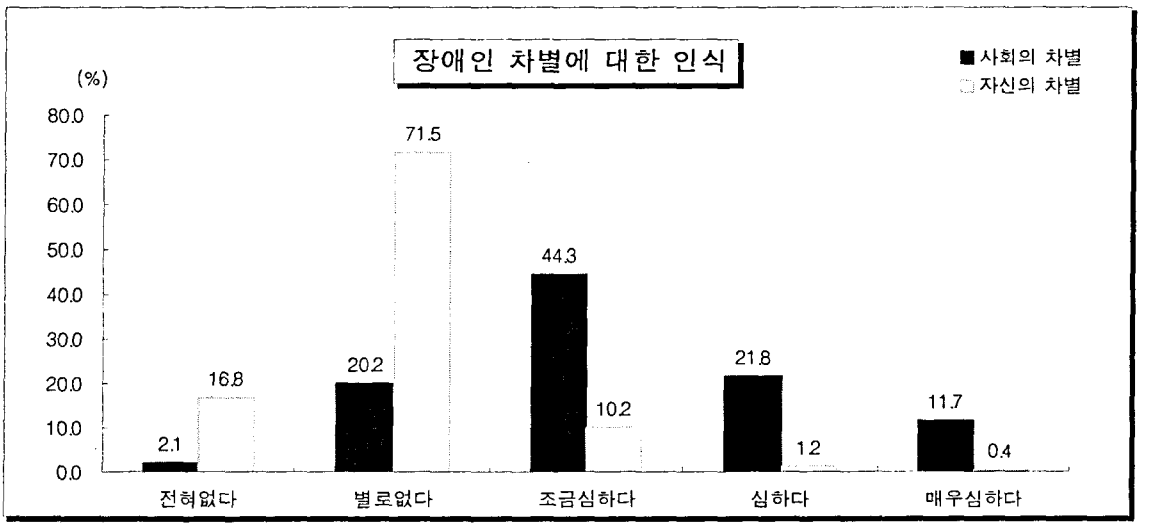
	계	보육비 지원확대	보육시설 확 충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 상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 화	보육교사 확 충	육아휴직 제도의 정 착	기 타
자녀의 보호자	100.0	40.1	16.0	20.5	10.5	9.0	3.8	0.2
자녀보호자의 연 령								
25 ~ 29세	100.0	43.1	10.4	31.7	9.3	0.0	5.6	0.0
30 ~ 34세	100.0	43.5	11.9	19.2	13.6	8.2	3.7	0.0
35 ~ 39세	100.0	38.7	18.0	20.8	8.5	10.4	3.4	0.1
40세 이상	100.0	38.7	17.4	19.4	10.8	9.2	4.2	0.3

17.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7.8%인 반면, 「자신」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8.3% 임

○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정도**에 대해 「(전혀/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2.3%인 반면, 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조금/매우)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7.8%로 나타남

○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전혀/별로) 없다」가 88.3%, 「(조금/매우) 심하다」가 11.8%에 불과하여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인식간에 차이를 보였음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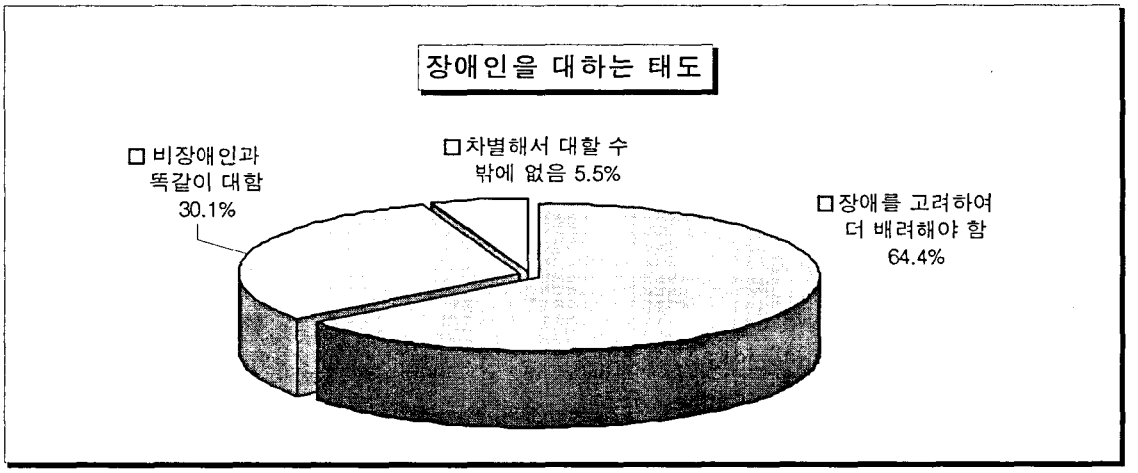
	계	전혀없다	별로없다	조금 심하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사회의 장애인 차별	100.0	2.1	20.2	44.3	21.8	11.7
자신의 장애인 차별	100.0	16.8	71.5	10.2	1.2	0.4

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

18.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한다(64.4%)」가 가장 많음

○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람직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이 64.4%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함」이 30.1%,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은 5.5%로 나타남



<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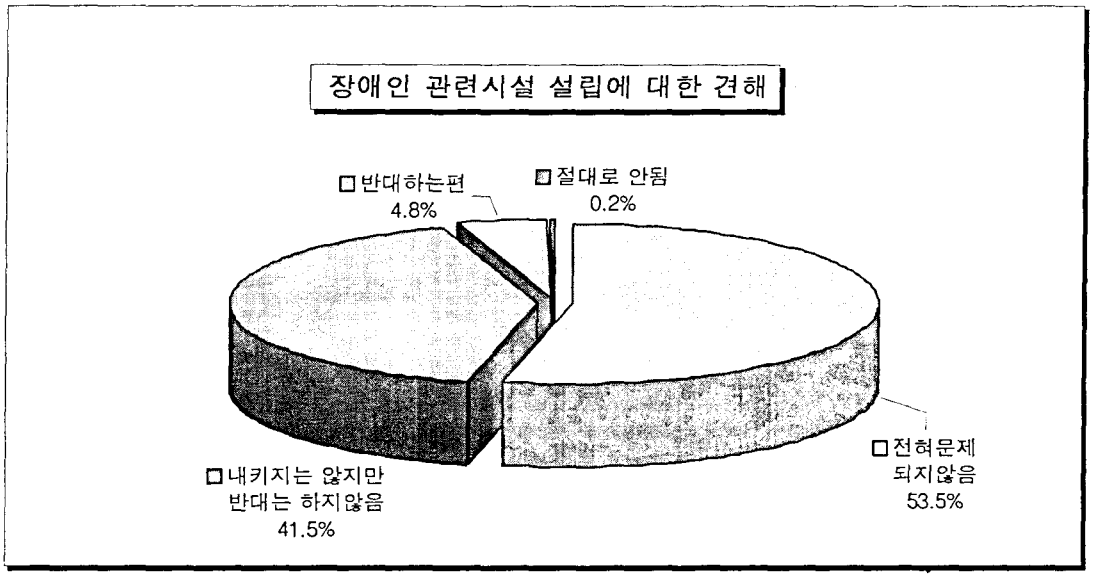
	계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함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
15세 이상 인구	100.0	64.4	30.1	5.5

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

19.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53.5%, 「내키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음」 41.5% 로 나타남

○ 집근처에 장애인 관련시설(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53.5%)」, 「내키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음(41.5%)」,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됨(5.0%)」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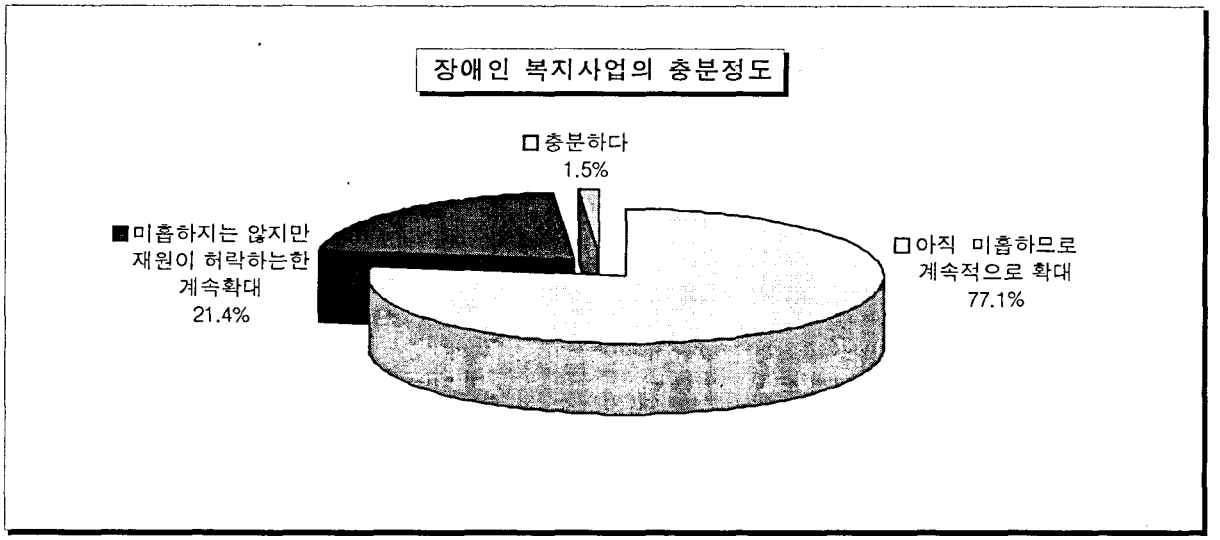
	계	전혀문제 되지않음	내키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않음	반대하는편	절대로 안됨
15세 이상 인구	100.0	53.5	41.5	4.8	0.2

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

20.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충분성에 대해 77.1%가 「아직 미흡하므로 계속적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므로 계속적으로 확대(77.1%)」, 「미흡하지는 않지만 재원이 허락하는 한 계속 확대(21.4%)」, 「충분하다(1.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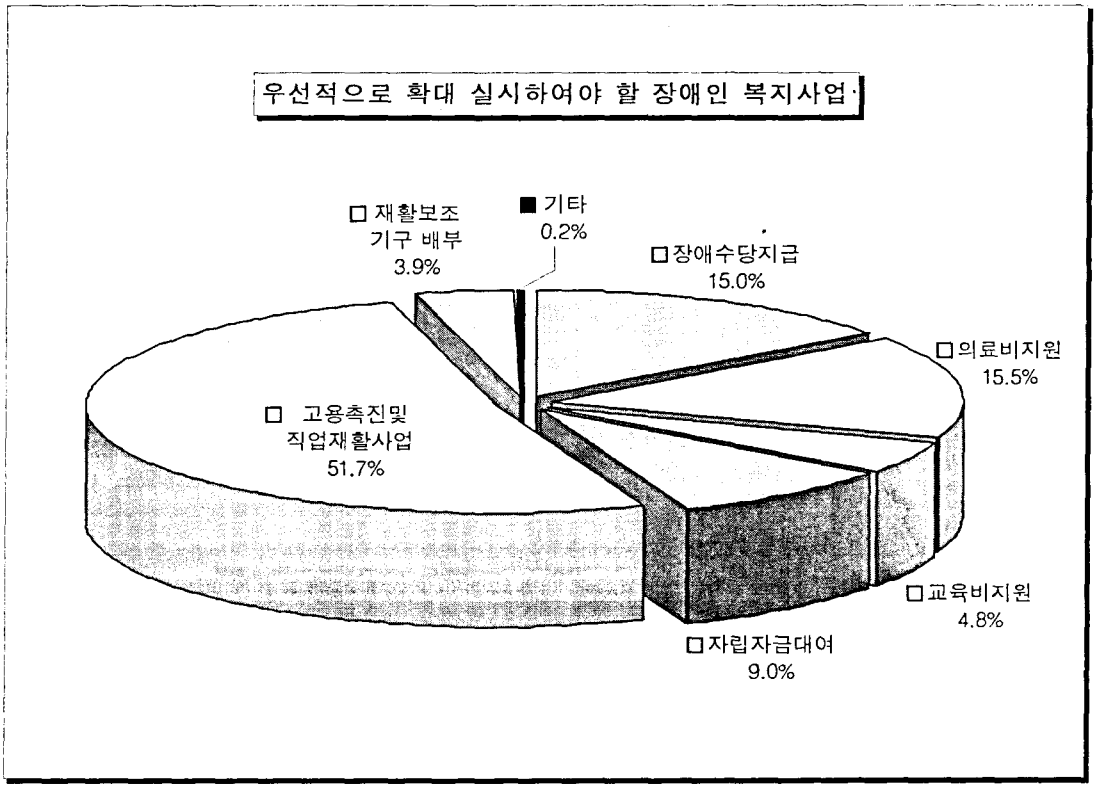
	계	아직 미흡하므로 계속적으로 확대	미흡하지는 않지만 재원이 허락하는한 계속확대	충분하다
15세 이상 인구	100.0	77.1	21.4	1.5

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

21.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의료비지원」, 「장애수당지급」을 가장 원하였음

○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이라는 사람이 5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료비 지원(15.5%)」, 「장애 수당 지급(15.0%)」, 「자립 자금 대여(9.0%)」 순으로 나타났음



<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단위 : %)

	계	장애수당 지 급	의료비 지 원	교육비 지 원	자립자금 대 여	고용촉진및 직업재활 사 업	재활보조 기구배부	기타
15세 이상 인 구	100.0	15.0	15.5	4.8	9.0	51.7	3.9	0.2

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

22.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15세 이상 인구의 8.8%가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중 「복지시설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이 71.5%로 가장 많았음

○ 지난 1년 동안(2004. 6. 15 ~ 2005. 6. 14) 15세 이상 인구의 8.8%가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

-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분야는 「복지시설의 장애인(71.5%)」, 「집에 있는 장애인(24.2%)」, 「병원에 있는 장애인(9.8%)」 순으로 많이 이루어졌음

○ 지난 1년간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73.7%,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36.8%가 향후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

(단위 : %)

	계	참여한적 있다	복지시설의 장애인	집에있는 장애인	병원에 있는 장애인	기 타	참여한적 없다
15세 이상 인구	100.0	8.8	71.5	24.2	9.8	4.4	91.2

< 향후 봉사활동 의사 >

(단위 : %)

	계	경험 있다	소계	계속 하겠다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	하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다	할생각 없음	경험 없다	소계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	하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다	할생각 없음
15세 이상 인구	100.0	8.8	100.0	25.4	48.3	23.7	2.6	91.2	100.0	36.8	49.1	14.1

【 안 전 】

1. 준법수준

평소 준법수준에 대해 「자기 자신」은 64.9%가, 「다른사람」은 27.5%만이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킨다」 27.5%, 「보통이다」 48.6%, 「지키지 않는다」 23.9%로 나타났음

○ **자기 자신이** 평소에 법을 지키는 정도에 대해서는 「지킨다」가 64.9%, 「지키지 않는다」는 2.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자신은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기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귀찮아서」가 47.2%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24.5%)」, 「법을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12.3%)」,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11.7%)」 순이었음

< 준법수준 >

(단위 : %)

	계	지킨다	아 주	비교적	보통이다	지키지 않는다	비교적	전 혀
타인평가	100.0	27.5	2.5	24.9	48.6	23.9	22.7	1.2
자기평가	100.0	64.9	13.4	51.5	32.7	2.4	2.3	0.1

< 자기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

(단위 : %)

	계[1]	법을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귀찮아서	기 타
15세 이상 인구	100.0	12.3	11.7	24.5	47.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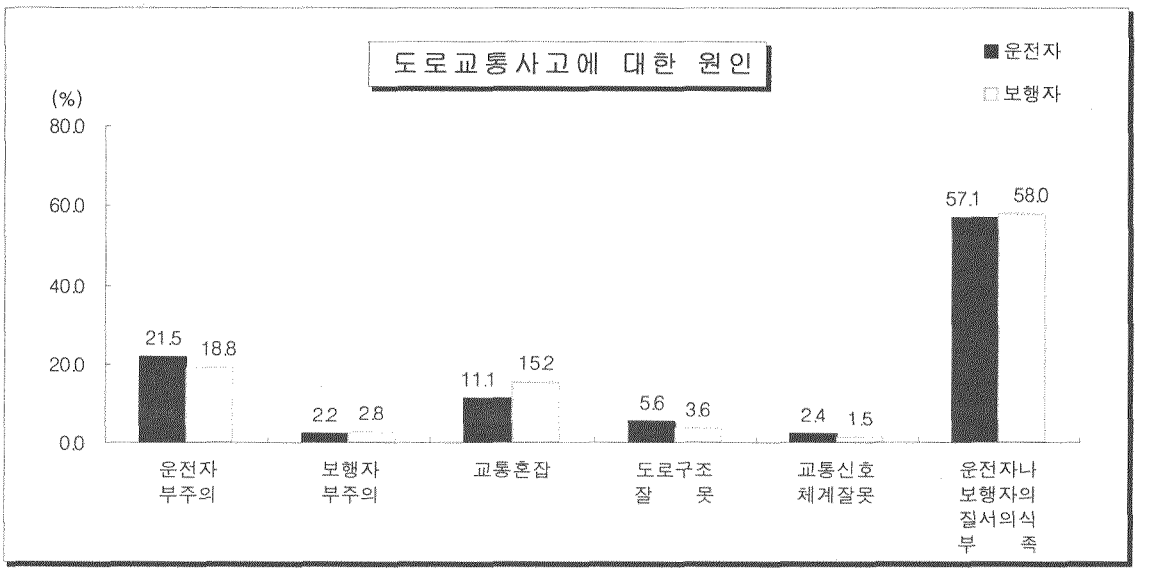
주: 1) 자기 자신이 평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

2.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도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에 대해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57.6%)」, 「운전자의 부주의(20.0%)」, 「교통혼잡(13.4%)」 순으로 응답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에 대해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57.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운전자의 부주의(20.0%)」, 「교통혼잡(13.4%)」 순으로 나타났음

-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운전하는 사람에 비해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족」, 「교통혼잡」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단위 : %)

	계	운전자 부주의	보행자 부주의	교통혼잡	도로구조 잘 못	교통신호 체계잘못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 족	기 타
15세 이상 인구	100.0	20.0	2.5	13.4	4.5	1.9	57.6	0.1
운 전 자	100.0	21.5	2.2	11.1	5.6	2.4	57.1	0.0
보 행 자	100.0	18.8	2.8	15.2	3.6	1.5	58.0	0.1

3. 공공질서 수준

우리 국민들이 공공질서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1년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높아졌음

○ 경기도민들의 공공질서 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질서를 **'지킨다'**는 응답은 「차례지키기(51.5%)」, 「보행질서(34.3%)」 순으로 많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공공장소 정숙(휴대폰 사용 등)(48.8%)」, 「거리환경질서(담배꽁초, 침뱉기 등) (46.1%)」 순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 살펴보면, 「차례지키기」, 「보행질서」, 「공공장소 금연」은 '지킨다' 비율이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많았음
  - 반면 「거리환경질서(담배꽁초, 침뱉기 등)」, 「운전자 교통질서」, 「공공장소 정숙(휴대폰 사용 등)」은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지킨다'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2001년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지킨다'의 비율은 높아졌고, '지키지 않는다'의 비율은 낮아졌음

< 공공질서 수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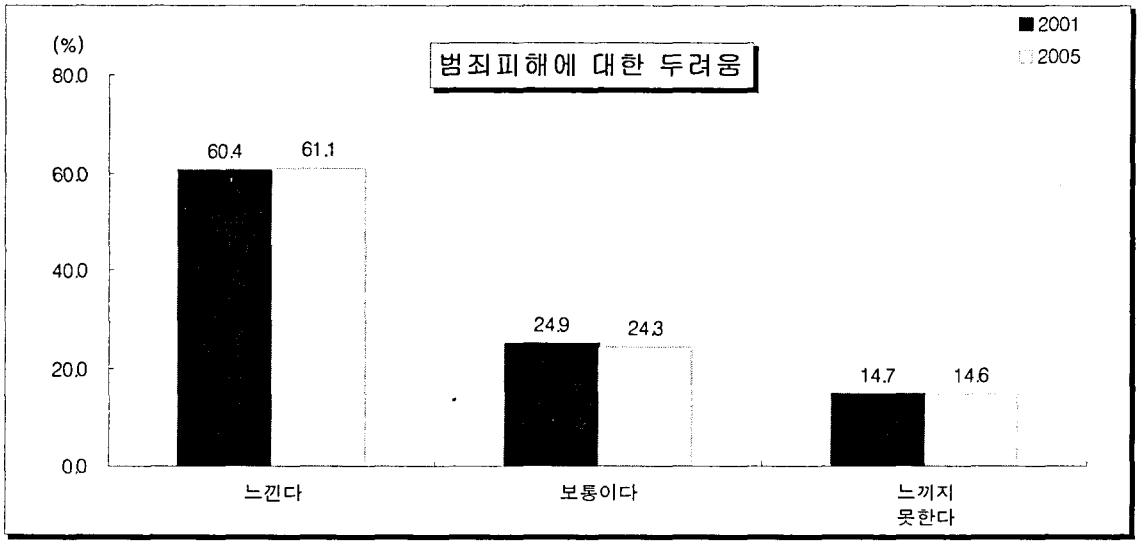
		계	지킨다	아 주	비교적	보통이다	지키지 않는다	비교적	전 혀
차례지키기	2001	100.0	38.1	6.2	31.9	39.2	22.7	19.5	3.2
(승차장, 극장, 화장실 등)	2005	100.0	51.5	9.8	41.7	36.0	12.5	11.2	1.3
거리환경질서	2001	100.0	17.3	4.5	12.8	28.4	54.3	41.9	12.4
(담배꽁초, 침뱉기 등)	2005	100.0	22.7	6.5	16.2	31.2	46.1	36.0	10.1
보행질서	2001	100.0	29.9	5.4	24.5	44.8	25.4	23.1	2.2
(횡단보도, 육교 등)	2005	100.0	34.3	6.0	28.3	45.3	20.4	18.8	1.6
운전자 교통질서	2001	100.0	18.3	3.2	15.2	46.4	35.2	31.1	4.1
	2005	100.0	21.9	3.8	18.1	49.0	29.1	26.4	2.8
공공장소 금연	2001	100.0	28.9	7.2	21.7	34.9	36.2	30.4	5.8
	2005	100.0	34.0	9.5	24.5	36.1	29.9	24.8	5.1
공공장소 정숙	2001	100.0	14.7	3.7	11.0	27.7	57.5	41.6	15.9
(휴대폰 사용, 크게떠듦)	2005	100.0	19.4	5.2	14.2	31.8	48.8	36.8	12.0

4.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평소 범죄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61.1%였고,
2001년에 비해 0.7%P 증가하였음

○ 평소 범죄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느낀다」 61.1%, 「보통이다」 24.3%, 「느끼지 못한다」 14.6% 로 나타남

- 범죄 피해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1년 60.4%에 비해 0.7%p 증가하였음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단위 : %)

	계	느낀다	매우많이	약 간	보통이다	느끼지 못한다	별 로	전 혀
2001	100.0	60.4	17.1	43.3	24.9	14.7	12.5	2.1
2005	100.0	61.1	18.3	42.8	24.3	14.6	12.3	2.4

5.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집 근처에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가 45.2%로,
가장 큰 이유는 「인적이 드물어서(61.0%)」임
대처방법으로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57.6%로 가장 많았음

○ 집근처에 야간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45.2%로 2001년 50.3%에 비해 5.1%p 감소하였음

- 두려운 곳이 「있다」는 여자(57.3%)가 남자(32.8%)보다 높게 나타남

○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이유**는 「인적이 드물어서(61.0%)」, 「가로등이 없어서(30.2%)」, 「우범지역이므로(8.0%)」 순이었음

○ 집근처에 야간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57.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조금 멀더라도 피해 다닌다(15.4%)」, 「낮이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12.4%)」 순으로 나타남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단위 : %)

	계	두려운곳 있다	소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두려운곳 없다
2001	100.0	50.3	100.0	32.9	9.6	55.8	1.7	49.7
2005	100.0	45.2	100.0	30.2	8.0	61.0	0.8	54.8
남 자	100.0	32.8	100.0	30.7	10.6	58.2	0.6	67.2
여 자	100.0	57.3	100.0	29.9	6.6	62.6	0.9	42.7

< 야간보행에 대한 대처방법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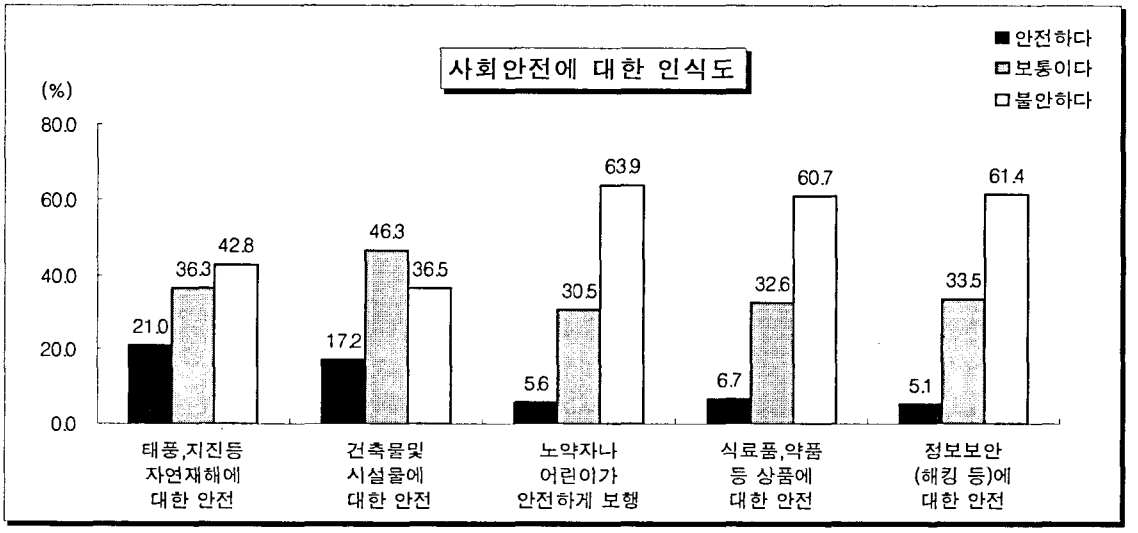
	두려운곳 있다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피해 다닌다	집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이나 다음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001	100.0	60.3	12.0	7.7	6.9	12.2	0.3	0.5
2005	100.0	57.6	15.4	5.5	8.3	12.4	0.3	0.4
남 자	100.0	70.2	13.7	3.6	5.0	6.8	0.4	0.3
여 자	100.0	50.6	16.4	6.6	10.1	15.5	0.3	0.5

6.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안하다」가 많았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안전보행」 부문의 불안비율(63.9%)이 높게 나타남

○ 우리 사회의 안전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안전하다」 보다 많았음

- 부문별 불안 정도를 보면, 「노약자나 어린이가 자동차 위험없이 안전하게 보행(63.9%)」, 「정보 보안(해킹 등)에 대한 안전(61.4%)」, 「식료품, 약품 등 상품에 대한 안전(60.7%)」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

(단위 : %)

	계	안전하다	매 우	비교적	보통이다	불안하다	비교적	매 우
태풍,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한 안전	100.0	21.0	1.5	19.5	36.3	42.8	33.9	8.8
건축물 및 시설물 (주택, 교량등)에 대한 안전	100.0	17.2	0.8	16.4	46.3	36.5	31.1	5.4
노약자나 어린이가 자동차 위험없이 안전하게 보행	100.0	5.6	0.3	5.3	30.5	63.9	48.2	15.7
식료품, 약품 등 상품에 대한 안전	100.0	6.7	0.3	6.4	32.6	60.7	43.5	17.2
정보보안(해킹 등) 에 대한 안전	100.0	5.1	0.4	4.7	33.5	61.4	40.3	21.1

7. 범죄피해 미신고 비율 및 이유

지난 1년간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7.3%이며, 특히, 절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아서(43.0%)」가 미신고의 가장 주된 이유임

○ 지난 1년 동안(2004. 6. 15 ~ 2005. 6. 14) 집이나 밖(직장, 가게, 거리 등)에서 절도, 사기, 강도, 폭행·상해 등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의 발생 범죄 중 신고한 경우는 32.7%,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7.3%였음

- 미신고 건수의 경우 절도가 53.5%로 가장 많았고, 강도가 3.2%로 가장 적었음

○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범죄종류별로 보면, 절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아서」가 43.0%로 가장 많았고, 사기와 강도의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56.2%, 57.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범죄피해 미신고 비율 >

(단위 : %)

	범죄피해[1]	신 고	미신고	소계	절도	사기	강도	폭행·상해
15세 이상 인 구	100.0	32.7	67.3	100.0	53.5	36.4	3.2	6.9

주 : 1) 범죄란 크든 작든 가구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사건임

<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 >

(단위 : %)

	계[1]	피해가 크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별효과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귀찮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보복이 두려워서	범인이 아는사람이어서	남에게 알려지면 손해볼것 같아서	기타
절 도	100.0	43.0	41.2	7.6	4.8	0.9	2.1	0.0	0.0	0.4
사 기	100.0	12.1	56.2	7.3	1.1	3.5	2.7	14.9	1.6	0.5
강 도	100.0	21.0	57.9	6.3	14.8	0.0	0.0	0.0	0.0	0.0
폭행 · 상해	100.0	27.0	22.1	13.5	6.7	6.7	7.2	16.8	0.0	0.0

주 : 1) 범죄피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환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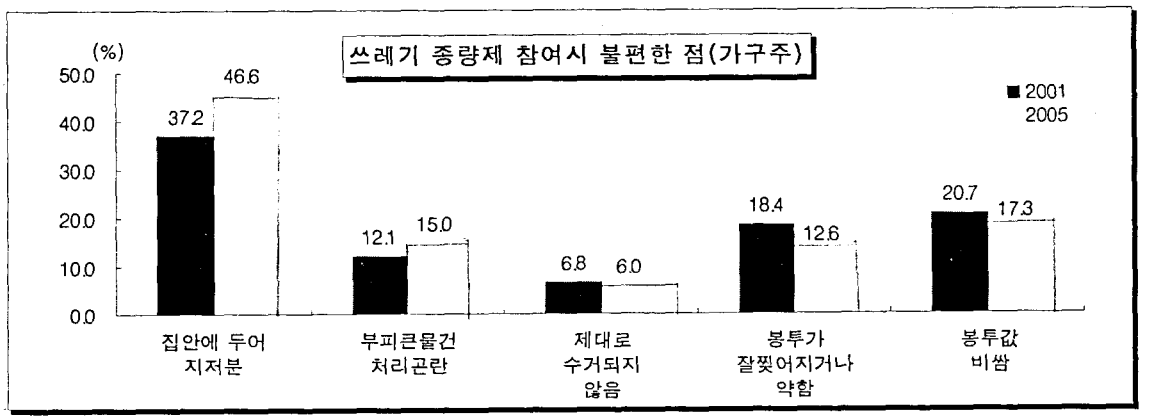
1. 쓰레기 종량제 참여시 불편한 점 (가구주)

쓰레기 종량제 참여시 불편한 점으로는
「쓰레기를 집안에 두어 지저분하다」 가 46.6%로 가장 많았음

○ 쓰레기 종량제 참여시 불편한 점은 「쓰레기를 집안에 두어 지저분함」이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봉투값이 비쌈(17.3%)」, 「부피가 큰 물건들은 처리가 곤란(15.0%)」 순으로 나타남

- 2001년과 비교하여 「쓰레기를 집안에 두어 지저분함」, 「부피가 큰 물건들은 처리가 곤란」으로 인한 불편함이 증가하였음

- 주택형태별로 보면 「쓰레기를 집안에 두어 지저분함」의 경우는 아파트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음」은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쓰레기 종량제 참여시 불편한 점 (가구주)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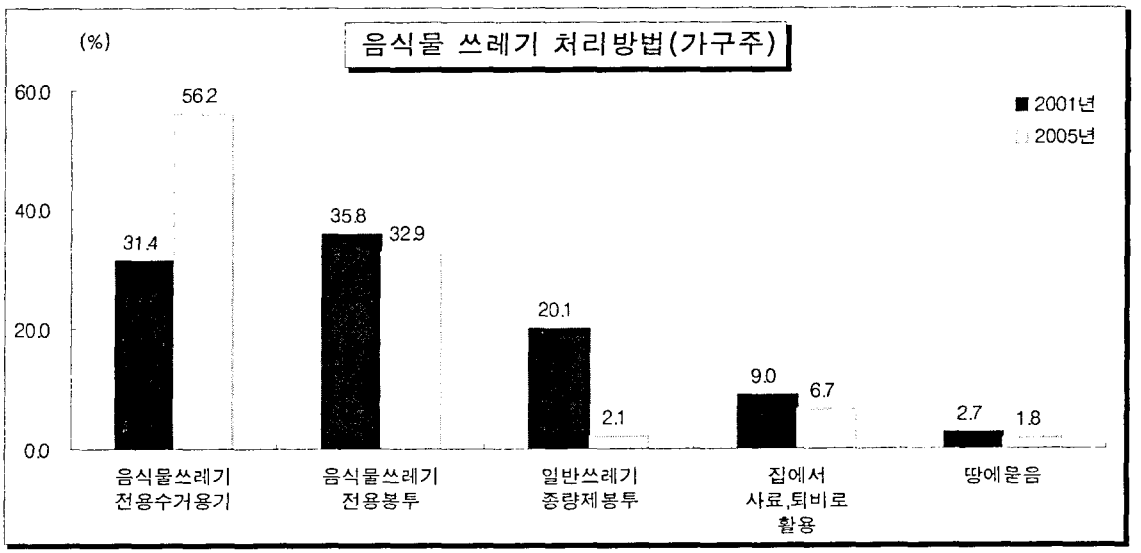
	계	집안에 두어 지저분	부피 큰 물건 처리곤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음	봉투가 잘 찢어지거나 약함	봉투값 비쌈	기 타
2001	100.0	37.2	12.1	6.8	18.4	20.7	4.8
2005	100.0	46.6	15.0	6.0	12.6	17.3	2.4
남 자	100.0	46.2	15.8	6.3	13.0	16.5	2.2
여 자	100.0	48.2	12.0	4.9	11.1	20.5	3.3
단독주택	100.0	42.8	13.4	10.3	11.0	16.9	5.6
아 파 트	100.0	46.3	17.3	3.3	14.3	18.3	0.5
기 타	100.0	54.3	12.3	4.8	11.5	16.0	1.2

2.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가구주)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넣음」이 56.2%로 가장 많았음

○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넣음」이 56.2%로 가장 많았고, 2001년 31.4%보다 24.8%p 증가하였음

-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부분(91.8%)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가구주)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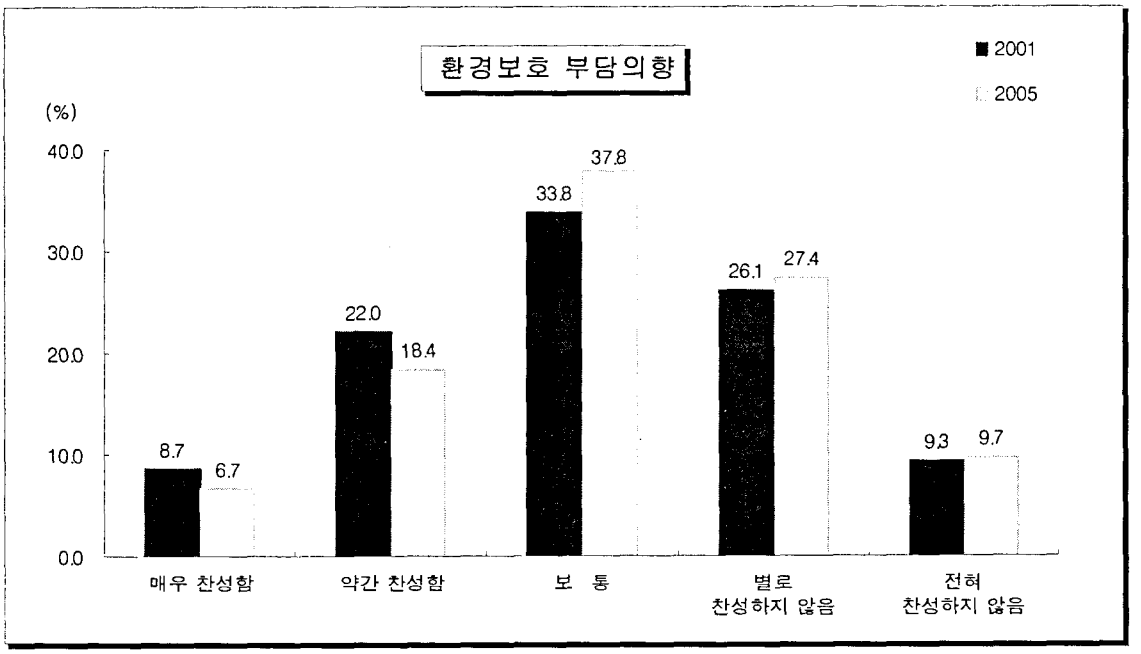
	계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집에서 사료,퇴비로 재활용함	땅에묻음	기타
2001	100.0	31.4	35.8	20.1	9.0	2.7	1.0
2005	100.0	56.2	32.9	2.1	6.7	1.8	0.3
남 자	100.0	58.5	30.5	2.3	6.9	1.5	0.2
여 자	100.0	47.7	41.7	1.5	5.7	2.9	0.5
단독주택	100.0	15.7	57.9	3.7	17.5	4.7	0.5
아 파 트	100.0	91.8	6.5	1.3	0.3	0.0	0.1
기 타	100.0	46.2	49.4	1.1	2.1	0.9	0.2

3. 환경보호 부담의향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찬성」 25.1%, 「보통」 37.8%, 「찬성하지 않음」 37.1% 로 나타남

○ 환경보호를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찬성함」이 25.1%, 「찬성하지 않음」이 37.1%로 나타났음

- 「찬성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 환경보호 부담의향 >

(단위 : %)

	계	찬성함	매 우	약 간	보 통	찬성하지 않 음	별 로	전 혀
2001	100.0	30.7	8.7	22.0	33.8	35.5	26.1	9.3
2005	100.0	25.1	6.7	18.4	37.8	37.1	27.4	9.7
남 자	100.0	25.7	7.3	18.4	37.1	37.1	27.3	9.8
여 자	100.0	24.5	6.1	18.4	38.5	37.0	27.5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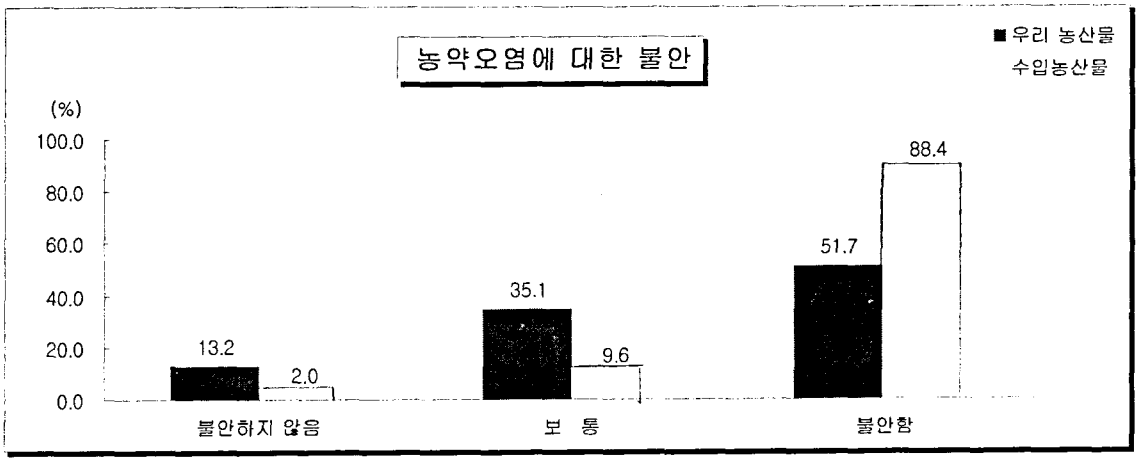
4.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농산물의 농약오염으로 인한 「불안」 비율은
「우리 농산물」의 경우 51.7%, 「수입 농산물」은 88.4%였음

○ 농산물의 농약오염으로 인한 불안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농산물의 경우 「불안하지 않음」 13.2%, 「보통」 35.1%, 「불안함」 51.7%로 응답자의 절반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농산물의 경우는 「불안하지 않음」 2.0%, 「보통」 9.6%, 「불안함」 88.4%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음

○ 2001년과 비교하면, 우리 농산물의 경우 「불안함」의 비율이 4.2%p 감소한 반면, 수입 농산물은 5.4%p 증가하였음



<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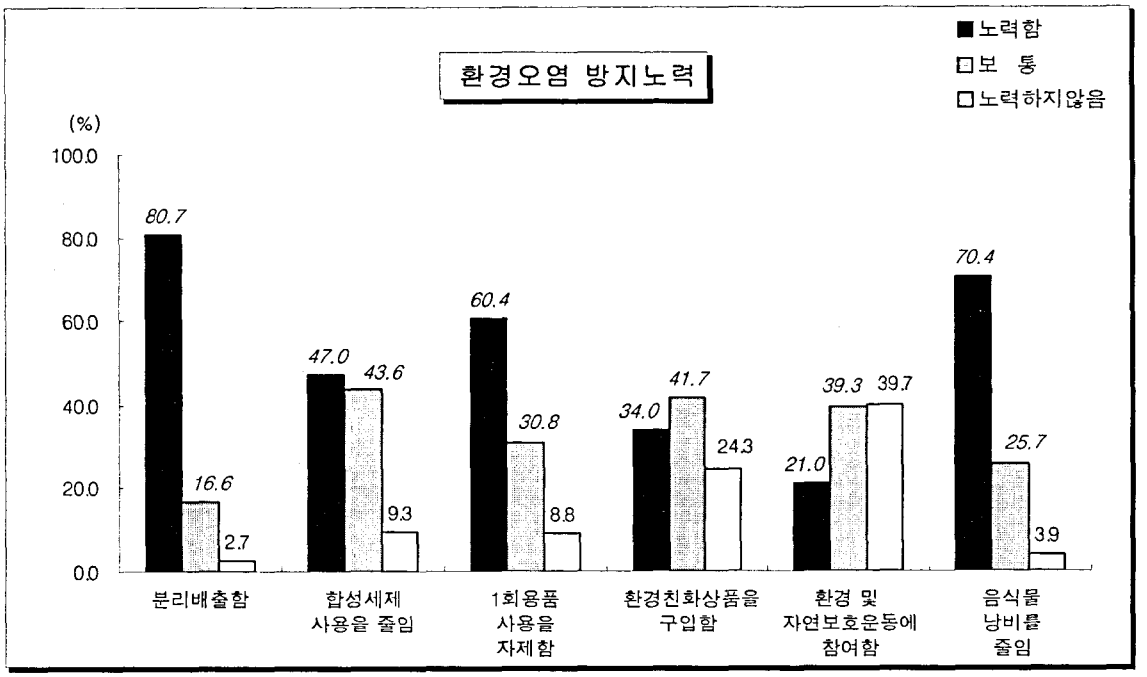
(단위 : %)

		계	불안하지 않음	전 혀	별 로	보 통	불안함	약 간	매 우
우리 농산물	2001	100.0	9.1	1.0	8.0	35.1	55.9	42.8	13.1
	2005	100.0	13.2	2.1	11.1	35.1	51.7	39.7	12.0
	남 자	100.0	14.6	2.4	12.3	38.2	47.2	37.1	10.1
	여 자	100.0	11.8	1.9	9.9	32.1	56.1	42.2	13.9
수입 농산물	2001	100.0	2.9	0.5	2.4	14.1	83.0	31.7	51.4
	2005	100.0	2.0	0.5	1.6	9.6	88.4	29.0	59.3
	남 자	100.0	2.4	0.6	1.8	10.9	86.8	31.4	55.4
	여 자	100.0	1.7	0.4	1.4	8.3	90.0	26.8	63.2

5. 환경 오염 방지 노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은 80.7%가,
「음식물 낭비를 줄인다」는 70.4%가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력한다'의 경우 「분리배출 한다(80.7%)」, 「음식물 낭비를 줄인다(70.4%)」,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60.4%)」 순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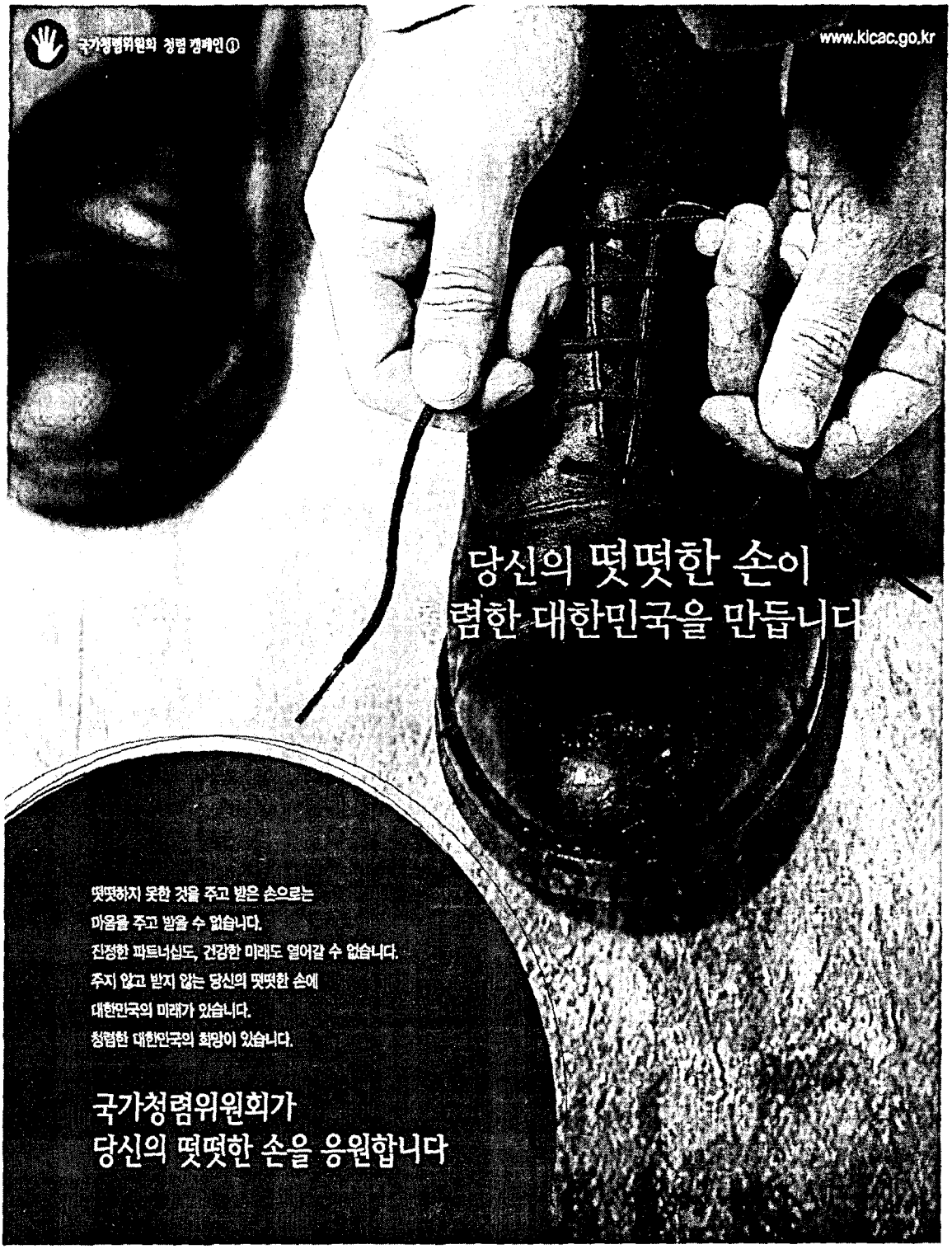


< 환경오염 방지노력 >

(단위 : %)

		계	노력함	매 우	약 간	보 통	노력하지 않 음	별 로	전 혀
분리배출(일반·음식물 쓰레기,재활용품)한다	2001	100.0	78.8	47.0	31.8	17.4	3.7	3.1	0.6
	2005	100.0	80.7	45.9	34.8	16.6	2.7	2.3	0.4
합성세제 사용을 줄인다	2001	100.0	51.1	15.8	35.3	40.6	8.3	7.5	0.8
	2005	100.0	47.0	14.1	33.0	43.6	9.3	8.6	0.7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2001	100.0	64.7	29.2	35.6	27.7	7.5	6.8	0.7
	2005	100.0	60.4	25.6	34.9	30.8	8.8	8.1	0.8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상품을 구입한다	2001	100.0	42.5	12.0	30.6	41.5	15.9	14.0	1.9
	2005	100.0	34.0	10.6	23.4	41.7	24.3	20.0	4.2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한다	2001	100.0	22.8	7.5	15.3	40.8	36.4	25.4	11.0
	2005	100.0	21.0	6.1	14.9	39.3	39.7	27.8	11.9
음식물 낭비를 줄인다[1]	2005	100.0	70.4	29.3	41.1	25.7	3.9	3.5	0.4

주 : 1) 2001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음



국가청렴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경기지방통계청에서는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계의 생명은 신속하고 정확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안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경기도 사회통계조사 결과
(복지, 안전, 환경)

발행일 : 2006년 2월
발행인 : 조 성 제
편집인 : 김 태 석
발행처 : 경기지방통계청

(우)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통계청길 31 (인계동 1133-9)